

# 두 예레미야서는 앞뒤로 따로 편집되어야 한다

민영진\*

## 1. 길이가 다른 두 예레미야서

본 논문의 주된 관심은 서로 다른 두 예레미야서를 한 권의 구약 성서에 독립적으로 나열하여 편집하는 데에 있다. 서로 다른 두 예레미야서라 함은 LXX를 통해 전해지는 예레미야서(Jer-LXX)와 마소라 본문을 통해 전해지는 예레미야서(Jer-MT)를 말한다.

LXX의 예레미야서(Jer-LXX)가 MT의 예레미야서(Jer-MT)보다 짧은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컴퓨터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Jer-LXX는 Jer-MT보다 1/7이 짧으며, 3,097 단어가 빠져 있다. 이 같은 통계 자료는 그래프의 「예레미야 주석」(라이프치히, 1862)에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난다. 여기서는 Jer-LXX의 알렉산드리아 판이 MT에 비해 2,700단어가 모자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차이의 이유에 관해 학문적 논쟁이 많이 있어 왔다. 양적 차이의 이유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히브리어 대본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요약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그와는 반대로, 히브리어 대본이 본래 MT보다 짧았다고 말한다. 첫 번째 관점이 주장하는 바는, LXX 번역자/번역자들이 히브리어 본문의 장황한 문체를 압축 혹은 생략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번역자(들)의 고의적인 삭제 때문에, MT에는 있으나 LXX에는 없는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 관점의 주장은, MT에서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실은 히브리어 본문 자체의 확장하려는 경향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이다.

---

\* 대한성서공회 부총무, 성경원문연구소장(구약학).

「예레미야서 본문 연구」(1965)에서 제랄드 잔젠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두 가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나는 지글러가 괴팅겐 시리즈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예레미야서의 옛 그리스어 본문에 대한 새로운 비평적 편집본이며, 둘째는 콤란에서 발견된 예레미야서의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새로운 수사본(4QJer<sup>b</sup>) 증거이다. 잔젠은 Jer-LXX의 더 짧은 독본이 더 짧은 히브리어 대본을 반영한다고 설명하였다.

잔젠은, 그리스어 번역자가 히브리어 대본을 여러 군데서 요약하였다는 그라프-기이세브레흐트 이론을 강력하게 반박한다. 잔젠은 그 나름대로 예레미야서의 히브리어 본문으로 콤란의 새로운 필사본(4QJer<sup>b</sup>)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4QJer<sup>b</sup>가 LXX 번역의 대본과 동일한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4QJer<sup>b</sup>가 히브리어로 된 예레미야서 본문의 더 짧은 형태가 있음을 확인해주는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번역에 의해서 다양한 그리스어 독본이 나오게 되었다는 그라프-기이세브레흐트 이론을 반박하는 증거가 되었다. 잔젠은 4QJer<sup>b</sup>를 분석함으로써 더 짧은 히브리어 예레미야서가 Jer-LXX와 일치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임마누엘 토브는 "L'incidence"(1972)와 그 이후의 작업에서, Jer-LXX와 Jer-MT 관계에 있어 새로운 면을 보여주었다. 그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 두 본문간의 차이점은 본문 전승에 따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Jer-LXX와 Jer-MT는 한 본문의 두 전승이 아니라, 처음부터 서로 달랐던 예레미야서의 두 판이었다는 것이다. 토브는 짧은 LXX 판을 첫 번째 판으로(Ed. I), 긴 MT 판을 두 번째 판(Ed. II)으로 여긴다.

클라인은 Jer-MT가 확장된 증거들을 검토하였다. 역시 Jer-LXX와 관련된 전체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론의 근거로서, 4QJer<sup>b</sup>에서 발견된 새로운 증거를 사용하였다. 잔젠과 토브가 그러했듯 클라인도, LXX에서 보여지는 더 짧은 독본이 더 짧고 원본에 가까운 히브리어 본문을 반영한다고 간주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하나만을 취하고 다른 하나를 배제하는 가능성만을 다룬 것으로 보여진다. 즉, 히브리어 대본을 번역자가 요약했다거나, 아니면 짧은 히브리어 대본이 있었다는 가능성들 중 하나만을 취하려 했던 것이다. 두 가지 가능성은 똑같이 고려되었어야 했다. 학자들 각각의 연구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결국 어느 한 쪽의 관점만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일부” 예시들을 나열하고 분석한 일 뿐이었다. 일반적으로 볼 때, 1977년까지는 Jer-LXX의 결손 요소(마이너스)와 첨가 요소(플러스) 중 많은 부분이 분석되지 않았으며, 그것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관적인 분류 또

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자들은 훨씬 많이 나타나는 Jer-LXX의 결손 요소에만 관심을 집중해 왔다. 결손 요소와 비교할 때 첨가 요소는 제대로 연구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위에서 언급한 민영진의 연구(주 1을 보라)에서는 처음부터 두 문서의 양적 차이를 번역자의 성향이나 히브리어 대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즉, 두 본문의 양적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번역자가 요약했다거나 MT가 확장되었다거나 하는 것만을 유일한 설명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민영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가지 평행적인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다.

#### LXX의 관점에서

- 1) 번역자가 긴 히브리어 대본을 요약했을 가능성
- 2) LXX 번역자가 충실히 보여주는 짧은 히브리어 대본

#### MT의 관점에서

- 1) LXX에서 보여지듯 긴 히브리어 본문(MT)이 전승과정에서 요약되었을 가능성
- 2) 짧은 히브리어 본문이 확장되었을 가능성(LXX의 히브리어 대본처럼)

지금까지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최초로 Jer-LXX의 결손과 첨가 목록 전체를 나열하였다. 아마도 히브리 본문의 첨가 요소에 근거하였던 LXX의 첨가 요소들은 일단 히브리어로 재번역되어, 결손 요소들과 함께 분석되도록 하였다. 결손 요소들과 첨가 요소들은 동일한 구문론적 기준에 의해 분류되었고, 상관 목록도 수집되었다. 이 비교 연구는 Jer-LXX의 결손 요소와 첨가 요소의 기원 및 특질에 관한 증거를 제공해 주었다.

아래는 Jer-LXX의 결손 요소와 첨가 요소에 관해 그가 분석하여 얻어낸 몇 가지 결론들이다.

- (1) Jer-LXX는 Jer-MT에 비해 1/7이 짧다.
- (2) Jer-LXX의 결손 요소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독특하여 우연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Jer-LXX의 특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번역자가 첨가했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겉모습만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결손 요소와 첨가 요소의 기원을 알아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Jer-LXX의 짧은 본문 문제는 양자택일적이 아니라 “집합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곧, 짧은 히브리

어 대본이라는 가정과 그리스어 번역자에 의한 히브리어 대본의 요약이라는 가정 모두를 취하여야 한다.

- (4) 그리스어 번역자가 히브리어 대본 중 덜 중요하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생략함으로써 본문을 요약했다는 가정은 지지되기 힘들다. 그 이유는 첫째, 동일한 요소들이 Jer-LXX의 다른 부분에서는 충실하게 번역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역시 동일한 요소들이 첨가 요소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 (5) 결손 요소와 첨가 요소의 대다수는 수식어이다. 이들은 대개 본문의 주제가 아닌 문체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Jer-LXX의 결손 요소들은 성서문필가들에 의해 히브리어 본문에 첨가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이 서기관들은, 분명 문체에 관심을 두었던, 성서 본문 형성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니, 히브리어 대본으로부터 Jer-LXX의 결손 요소들을 생략한 그리스어 번역자가, 히브리어 본문에서 중요치 않은 요소들조차 축자적으로 번역하였던 그 번역자와 동일 인물인가 하는 점이다.
- (6) 결손 요소들은 문장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문장들은 서언이나 결언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다. 일부 문장 결손들은 부록으로 여길 수 있다. 서언이나 결언은 쉽게 생략될 수 있는 군더더기라기보다는 편집상의 특징이다. 부록 요소들은 문장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때, 번역자가 문장의 필수 요소를 생략하여, 온전한 문장을 고의적으로 불완전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 (7) 유사문미(類似文尾)와 유사문두(文頭)의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긴 결손 요소의 대다수는 수개의 구절에 근거하여 새롭게 작문한 것이다.
- (8) Jer-LXX의 결손 요소들은, 이전의 짧은 히브리어 본문이 현존하는 MT 형태로 확장하게 된 결과이다. 반면, Jer-MT의 첨가 요소들은 아마도 상이한 히브리어 대본의 변이일 것이다.

Jer-MT의 첨가에 관한 특징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Jer-MT에는 Jer-LXX의 히브리어 대본에서는 볼 수 없는 “셀 수 없이 많은” 첨가가 있다(3,097 단어). 개정의 방향은 한 쪽이었다. 개정자 혹은 편집자들은 예레미야서의 히브리어 본문을 개정할 때 이전 본문에 대한 첨가로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삭제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다. 대체로, Jer-LXX는 Jer-MT보다 1/7이 짧다.
- (2) 첨가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으니, 곧 “짧은 첨가”와 “긴 첨가”이다.

짧은 첨가는 작은 히브리어 단위를 말하는데, 이것들은 독립적인 문장 요소도 아니고, 구문론적 단위도 아니며, 절(안은 문장 속의 안긴 문장)도 아니다. 긴 첨가는 대개 하나에서 수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다.

- (3) 첨가는 산문 부분과 운문 부분에서 모두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양에 있어서는 산문 부분이 운문 부분보다 훨씬 많다. 3,097 개의 단어 중 2,439 단어(79%)는 산문 부분이고, 658 단어(21%)는 운문 부분이다.
- (4) 짧은 첨가의 절대 다수는 수식어 형태인데, 주제와 관련되지 않고 문체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 수식어들은 다른 단어의 의미를 꾸며주는 제한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 (5) 긴 첨가들은 대개 편집상의 비평이나 구절인데, 다른 절들로부터 새로이 만들어진 것들이다.
- (6) 전술한 첨가들의 출처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인접한 문맥이고 (30%), 둘째는 예레미야서나 다른 부분에서의 평행 구절이고 (20%), 셋째는 예레미야서 여기저기에 나타나는 단어들이다 (35%). MT에 근거하지 않은 첨가는 그리 많지 않다(8%).
- (7) 첨가는 다음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다: 암시적인 참여자(대개 단독적인 주어와 목적어)의 명시화, 첨가; 한정(대개 부사); 병치, 문맥상의 동화나 평행구의 동화; 다양한 절들로부터 새로이 만들어진 것들.
- (8) 신학/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첨가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도 있다.

## 2. 자료배열이 다른 두 예레미야서

Jer-LXX와 Jer-MT를 비교할 때 부각되는 문제 중에는 “열방 신탁”과 관련된 자료를 배열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있다. Jer-LXX에서 나라들이 출현하는 순서는 Jer-MT의 그것과는 다르며, 그 위치 또한 25:1-14의 요약에 이어서 나온다. 그러나, Jer-MT는 46-51장 뒤에 신탁을 뒤편으로써 1:1-25:14과 25:15-38 사이의 연결을 깨뜨리며, 게다가 각 신탁의 순서도 Jer-LXX와 Jer-MT가 각각 다르다.

아래의 표는 Jer-LXX와 Jer-MT 간에 장과 절의 불일치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 표는 예레미야서 전체를 망라하는 비교표는 아니며, Jer-LXX와 Jer-MT를 비교할 때에 필요한 절만을 다루었다. 다음은 Jer-LXX와 Jer-MT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각 열방 신탁의 순서이다.

### Jer-LXX

엘람(25:14-20; MT 49:34-39)  
이집트(26:2-28; MT 46:2-28)  
바빌론(27:1-28:64; MT 50:1-51:64)  
블레셋(29:1-7; MT 47:1-7)  
에돔(30:1-16; MT 49:7-22)  
암몬(30:17-21; MT 49:1-6)  
시리아(30:29-33; MT 49:23-27)  
아랍(30:23-28; MT 49:28-33)  
모압(31:1-40; MT 48:1-47)

### Jer-MT

이집트(46:2-28; LXX 26:2-28)  
블레셋(47:1-7; LXX 29:1-7)  
모압(48:1-47; LXX 31)  
암몬(49:1-6; LXX 30:17-21)  
에돔(49:7-22; LXX ?)  
시리아(49:23-27; LXX 30:29-33)  
아랍(49:28-33; LXX 30:23-28)  
엘람(49:34-39; LXX 25:14-20)  
바빌론(50:1-51:64; LXX 27:1-28:64)

Jer-MT의 열방 신탁(46-51장)과 25:13에 뒤따르는 Jer-LXX의 열방 신탁을 볼 때 분명한 것은, 그 위치가 다를뿐더러 내부 배열도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열방 신탁의 위치와 내부 배열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유는 서로 다른 배열 자체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두 본문을 평행적으로 나열하는 편집 방식이나, 히브리어 본문 아래에 Jer-LXX 본문을 본문 비평 장치에 삽입하는 편집 방식의 위험과 한계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 3. 이데올로기가 다른 두 예레미야서

1) Jer-LXX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의 왕으로만 나타나지만, Jer-MT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난다.

(1) 렘 25:9

#### Jer-MT 렘 25:9 직역

보라, 내가 북녘의 모든 민족들을 바빌론의 왕, 나의 종 느부갓네살에게로 데려와 보낸다. - 여호와의 말이다 -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안의 거민들과 주위의 이 모든 민족들을 쳤다. 내가 그들을 내주어 놀라움과 야유와 영원한 폐허 더미로 만들었다.

#### Jer-LXX 렘 25:9 직역

보라, 내가 북녘의 한 민족을 데려와 보낼 것이다.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안의 거민들과 주위의 모든 민족들을 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황무케 할 것이다. 그들을 폐허와 야유와 영원한 치욕으로 만들 것이다.

바이서와 루돌프는 LXX를 따라 “여호와의 말이다”와 “바빌론의 왕, 나의 종 느부갓네살에게로”를 삭제한다(cf. BHS). “이 구절들은 구문론적으로 어색하다. 아마도 예언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주해일 것이다.” 할러데이는 Jwe-LXX와 같이 “- 여호와의 말이다 - 바빌론의 왕, 나의 종 느부갓네살에게로”를 삭제해야 한다고 제한한다. 두움, 기이세브레흐트, 코닐, 콘다민도 이와 같은 의견이다. 이 구절은 27:6의 MT 본문에서 나온 표현이다. 잔젠의 경우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BHS도 역시 이 구절을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놀랍게도 이방의 제왕이 주님의 종으로 묘사되고 있다. 같은 표현이 주님께서 부르신 예언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4절). LXX의 경우는 예레미야서에서 그러한 표현이 나올 때마다 생략하거나 변경하였다(cf. 25:5; 43:10).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으로 지칭한 점은 흥미있는 문제를 야기한다. 틱슨은 주장하기를, “바빌론의 왕, 나의 종 느부갓네살에게로”라는 구절이 Jer-LXX 번역자에 의해 생략되었는데, 이것은 번역자가 이방 왕에게 그러한 칭호와 명예를 주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그랬다는 것이다.

툼슨이 이미 옳게 지적한 대로, 바빌론의 왕이 야웨를 숭배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분명히 그는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을 것이다(cf. 이사야 44:28-45:1에서 고레스가 ‘내 목자’, ‘내 기름부음 받은 자’로 불린 것).

이는 27:6의 히브리어에도 역시 나타난다. 이것은 후대의 제2 이사야와 비슷한데, 여기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관해 이야기한다. 사 45:1ff.를 보면, 제2 이사야는 “종”이라는 칭호는 이스라엘을 위해 남겨두었고, 고레스에게는 더 유명한 표현인 ‘내 기름부음 받은 자’, ‘내 목자’라는 칭호를 붙였다.

툼슨에 따르면, “종”이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의 주종 관계에서 널리 쓰이던 것이어서, 조약을 맺을 때 사용하던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용어였다. 가신은 자기 주인을 섬기기 위해 군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야웨의 가신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같이 북쪽의 족속들과 함께 느부갓네살이, 유다와 유다 거민이 그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들을 멸하기 위해 부름받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느부갓네살에게 붙은 이 칭호가 MT의 제 2 편집 (edition II) 확장 과정 중에 삽입되었다고 설명되기도 한다. 이는 바빌론 왕을 신학적/사상적으로 변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토브와 맥케인에 의하면, MT에 나오는 표현은, 설명적인 주해로서, 유다의 적이 바빌론, 더 정확히 말해 느부갓네살이라고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MT 본문에서 부정사적인 표현 “그를 섬기기 위한” 대신에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놀랄만한 이득으로서, 많은 논평을 야기한다(렘케). 이것은 분명 후대의 신학적 고찰의 열매로서, 느부갓네살의 위치를 고양하기 위한 것이다(아마도 사 45:1의 ‘내 기름부음 받은 자’ 고레스를 긍정적 인물로 두고 그 옆에 느부갓네살을 부정적 인물로 두려는?)

## (2) 렘 27:6

### Jer-MT 렘 27:6 직역

이제, 나 - 내가 이 모든 땅들을 바빌론의 왕, 나의 종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다. 그리고 들의 짐승도 내가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다.

### Jer-LXX 렘 27:6 직역

내가 땅을 바빌론의 왕 나부코도노소르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다. 들의 들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위해 일하게 하였다.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는 구절은 25:9; 43:10에도 나타난다(LXX에는 없으나, 43:10을 보라). 첫 번째 편집자가 이 구절을 알고 있었는 지 모르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abdi*, ‘나의 종’은 LXX 25:9; 50:10[MT 43:10]에는 분명히 없다. 토브는 이 부분에서 MT가 LXX보다 원본에 더 가깝다고 결론내린다. 그러나 다른 두 부분에서는 LXX가 원본에 가깝다[25:9; 43:10])

여기서 야웨는, 느부갓네살이 안정되게 왕국의 왕위 계승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분은 당신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이다.

“땅”은 MT의 “이 모든 땅들”보다 선호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느부갓네살이 땅의 모든 것 - 특정한 민족들만이 아니라 들짐승들도 포함한 - 에 대하여 전능함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LXX(“the earth”)가 원본에 가까운 듯하다. MT의 경우, *ha’arets*가 쓰인 것은 단지 “땅”(the land, 유다의)만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된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기 위한 것 같다.

### (3) 렘 43:10 (LXX 50:10)

#### Jer-MT 렘 43:10 직역

너는 그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르렀다. ‘보라, 내가 바빌론의 왕, 나의 종 느부갓네살을 데려와 보낸다. 내가 그의 왕위를 숨겨 놓은 이 돌들 위에 두었고, 그는 그것들 위에 자기 장막을 넓혔다.’

#### Jer-LXX 렘 50:10 [MT 43:10] 직역

너는 그들에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르러. 보라, 내가 바빌론의 왕 나부코도노소르를 데려와 보낼 것이다. 그가 자기 왕위를 내가 숨겨 놓은 이 돌들 위에 둘 것이고, 그는 그것들을 치기 위해 무기를 들 것이다.

LXX에는 ‘바빌론의 왕, 나의 종 느부갓네살’ 중 ‘나의 종’이 빠져 있다(cf. 25:9; 27:6). 이 표현의 완전한 형태는 MT에 나타나는데, LXX 25:9에는 전체 구절이 빠져 있다. LXX에는 ‘나의 종’이라는 표현 대신 ‘그를 섬기기 위한’(to serve him)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43:10에 영향을 준 듯한 MT를 반영하는 듯하다.

“나의 종”이라는 구절의 삽입은 야웨와 느부갓네살 간의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내었고, 느부갓네살의 행동은 야웨의 행동을 대표하는 셈이 되었다.

**“그가 . . . 들 것이고”**

LXX와 같다. 그러나, 히브리어 “내가 . . . 두었고”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내가 숨겨 놓은”**

Jer-LXX “내가 숨겨 놓은”, 2인칭 남성 단수

Jer-MT “내가 . . . 숨겨 놓은”, 1인칭 공통 단수

**“내가 숨겨 놓은”**

LXX<sup>BA</sup>와 같다. 위 연설에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행동을 야웨의 것과 동일 시하기는 하지만, 야웨가 화자인 상황에서 MT의 “내가 . . . 숨겨 놓은”은 잘 맞지 않는다(존 브라이트, 259).

**10-13절**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징조는 이집트의 유대 공동체에게 분명히 보여지기 위한 것이다. 예언자는 그가 한 행동 이면의 의미를 설명하도록 명받았다. 야웨의 종, 느부갓네살은 이집트와 그 왕 파라오에게 성공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는 또한 야웨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야웨와 야웨의 예언자의 계획으로부터 피하려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2)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자는 (긴)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사상이 Jer-MT에는 나타나지만, Jer-LXX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1) 렘 27:12

**Jer-MT 렘 27:12 직역**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내가 이 말로써 말하였다. ‘네 목이 바빌론 왕의 멍에를 메도록 하여라.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 삶을 도모하여라.’

**Jer-LXX 렘 27:12 직역**

내가 또한 유다의 왕 세데키아스(Sedekias)에게 이 말로써 말하였다.

**‘네 목을 . . . 에 두어라. 그리고 바빌론 왕을 섬겨라.’**

이 절의 화자는 예레미야 자신이다(“내가 . . . 말하였다”). “네 목이 바빌론 왕의 멍에를 메도록 하여라.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삶을 도모하여라.”라고 말함으로써 예레미야는 바빌론인들에 대항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은 매우 선동적이다.

“심판이라는 목적을 수행할 때에, 온 땅의 창조자이자 주이신 야웨는 그 땅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시기로 선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하는 것은 야웨에 대항하는 것이다(27:5-8) . . . 여러 훼방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으니, 곧 이스라엘은 느부갓네살에게서 야웨의 심판의 손길을 인식하고 그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 렘 27:17

**Jer-MT 렘 27:17 직역**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론의 왕을 섬겨 삶을 도모하여라. 이 성읍이 왜 황폐하게 되었느냐?

**Jer-LXX 렘 27:17 직역**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BHS는 17절을 MT에 첨가된 것이라고 본다. G에는 없기 때문이다. 17절은 16절과 18절의 흐름을 방해한다. 16, 18절은 모두 (성전) 기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캐롤, *예레미야*, p. 529).

**Jer-MT 렘 27:16**

내가 또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와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빌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17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론의 왕을 섬겨 삶을 도모하여라. 이 성읍이 왜 황폐하게 되었느냐? 18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와 말씀의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와 유다 왕의 집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

를 바빌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 나라.’

“바빌론의 왕을 섬겨 삶을 도모하여라”라는 구절은 Jer-MT의 27:12, 17에 만 나온다. Jer-LXX에는 두 군데 모두 이 구절이 빠져 있다. 토브가 이야기 하는대로, 두 곳에서 모두 이 말의 뜻은 장수를 누리라는 것이다. 이런 용법은 다른 곳에서는 신명기적인 용어로 쓰이며, 아모스 5:4, 6에 나타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한대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날이 길어질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네가 잘 될 것이다.

#### 4. 예레미야서의 두 편집

토브의 두 편집 가설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두 본문의 차이에 근거한다. 곧, 두 본문이 각각의 길이와, 자료의 배열, 특히 열방 예언이 자리한 위치 등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게다가, 토브는 LXX 이면에 놓인 히브리어 전승이, 길이와 본문 배열 모두를 놓고 볼 때, 4QJer<sup>b</sup>에서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토브는 또한 이러한 예레미야서의 두 가지 편집이 한 때 히브리어로 공존했다고 말한다. 토브에 의하면, 이 때문에 현재 BH와 BHS가 본문 비평 장치에서 하고 있는대로, 더 짧은 LXX를 근거로 하여 더 긴 MT를 개정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토브에게 있어서 훌륭한 점은, 그가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저등(低等)” 비평과 “고등(高等)” 비평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토브의 주된 관심은 LXX의 결손 요소의 특징을 (혹은 그가 말하는 대로 라면, “제2 편집의 첨가 요소”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서의 제2 편집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토브에 따르면, LXX에 결여된 요소들은 예레미야서의 제2 편집 과정에서 첨가된 것이라고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다. "L'incidence"에는 제2 편집의 추가 요소들을 그가 잠정적으로 분류한 것이 나와 있다.

a) 문체적인 확장(이름들의 추가, 같은 절에서의 짧은 표현의 반복, 상투적

인 문구);

- b) 비슷한 문맥으로부터의 추가;
- c) 편집적인 논평(도입 문구, 종결 문구, 새 자료);
- d) 신명기적 추가.

토브는 LXX의 결손 요소들에 대한 자세한 특징 묘사를 심화된 연구로 넘긴다. 그러나, 제2 편집의 일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고 있다.

“세나톤”에서, 토브는 제2 편집의 추가의 성격에 관해서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 a) 제2 편집의 추가 중 다수가 “문맥에 부합하지 않는다”(e.g., 1:3; 27:1; 27:22; 28:16; 29:14; 29:16-20; 36:6; 41:2);
- b) 제2 편집 추가의 대부분이 제1 편집에서 언급되었던 세부 사항을 반복한다. 그렇지만, 때로는 제2 편집의 편집자는 다른 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 자료”를 삽입하기도 하였다(e.g., 27:7; 27:18; 25:1; 25:26; 36:22; 38:12; 41:16);
- c)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여러 곳에서, 예레미야서의 두 편집이 “서로 다르게 교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5. 두 편집의 우열의 문제

잔젠은 다음의 질문을 들어 MT보다 LXX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문제를 다루었다: “만일 LXX가 더 짧은 독본의 대본을 보여준다면, 이 독본은 더 긴 독본의 MT보다 우월한가, 열등한가?” 토브는 LXX가 MT에 비해 일반적으로 우월하다고 결론내렸는데, 이는 LXX의 생략이 서기관들의 실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짧은 히브리어 대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MT는 이문융합(異文融合)과 그 외의 확장에 영향을 받았다.

LXX와 MT의 길이의 차이의 기원은 본문의 우열에 관한 논쟁과 연결되어 논의되어 왔다. 한 쪽에서는 LXX가 히브리어 대본을 요약·삭제하였으므로 MT가 우월하다고 주장하였고, 다른 쪽에서는 MT가 이본 합성과 다른 형태의 확장을 겪었으므로 더 충실하게 히브리어 대본을 반영하는 LXX가 우월

하다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처음부터 두 본문의 우월성의 문제가 객관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 본문이 다른 본문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우월성”이 의미하는 바는 원본에 가깝다는 것 그 이상이 아니다. 예컨대, 무버, 솔츠, 잔젠은 LXX가 확장을 겪은 MT보다 히브리어 대본을 충실하게 반영하므로 더 우월하다고 하였고, 반면 그라프, 기이세브레흐트는 LXX가 히브리어 대본을 임의적으로 요약하였으므로 불완전하고 부패한 본문이라고 하였다.

한 본문이 다른 본문보다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는 것은 문법적, 구문론적, 문체적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원문에 가깝다”거나 “이차적이다” 등으로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된다. 잔젠에 대한 다후드의 비평적 재고도 역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예레미야서와 관련하여 MT와 LXX의 상대적인 장점을 논하는 오래 된 논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히브리어 본문의 문법적, 시적 현상을 충분히 연구해야 한다.”

## 6. 구약 정경은 두 예레미야서를 앞뒤로 따로 편집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두 예레미야서는 다른 역사적 전승 속에서 각각 정경의 일부로 인정되어 왔다. 한편으로 LXX에서 보여지는 예레미야서의 짧은 히브리어 본문의 경우, 초대 교회의 유일한 정경이었고, 이후로 지금까지도 정교회의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른 한편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 보존되어 있는 긴 히브리어 본문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불가타 - 긴 Jer-MT 본문을 반영하는 - 를 구약의 공인역으로 삼게 된 1956년 트레نت 공의회에서부터 정경으로 인정되었고, 개신교에서는 개혁의 처음부터 정경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이 두 문학적 편집은 구약 성서 안에 독립되어 연속적으로 번역·편집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1) 그리스어 예레미야서와 히브리어 예레미야서를 비교할 때 볼 수 있는 본문상의 이독과 자료의 상이한 배열은, 이들이 서로 다른 문학적 성장 과정을 겪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두 구약(LXX와 MT)의 다른 책들에서 볼 수 있는 본문상의 이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본문 비평을 위해 두 가지 문학적 전승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2) 한 가지 문학적 전승(예컨대, Jer-MT)을 기본 본문으로 삼고 다른 것(예컨대, Jer-LXX)을 본문의 이독을 위한 주로 삼게 되면, 두 예레미야서의 문학적 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힘들어질 것이다.

3) 두 본문을 병렬적인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 또한 만족스런 해결책이 아니다. 왜냐하면 두 본문은 자료의 배열에서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만일 병렬적인 배치를 하려면 한 본문을 기본으로 할 때 다른 본문의 자료를 재배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4) 두 예레미야서를 한 구약성서 안에 독립시켜 연속적으로 편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Jer-MT와 Jer-LXX 중 어느 것이 앞에 올 것인가의 문제는 개교회 전통에서 역사적으로 둘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였는가에 의해 결정지어질 수 있다.

5) 두 본문 중 어느 것이 우월한가의 문제는 문법적, 구문론적, 문체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월문에 가깝다”거나 “이차적이다”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왕대일 번역)